PRESSE //
KYOUNGJAE CHO

73-75 rue Quincampoix, 75003 Paris. Tél : +33 (0)1 42 77 05 97
Mardi au Samedi / 14h - 19h et sur rendez-vous
www.galeriedohyanglee.com info@galeriedohyangle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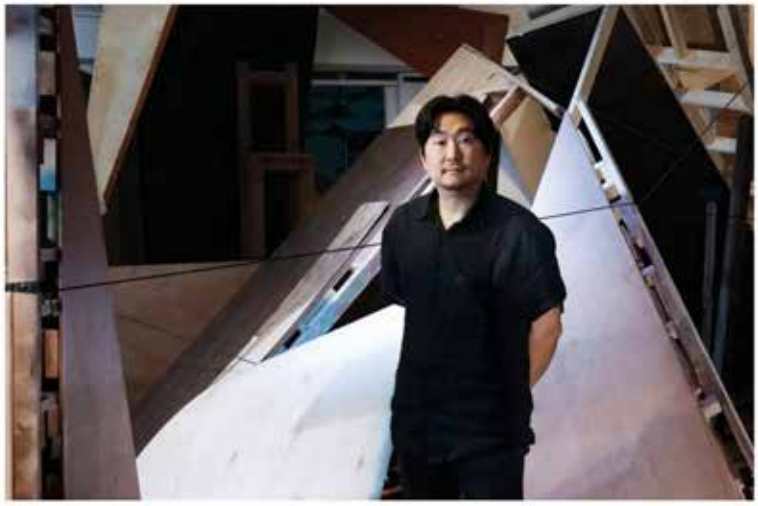
Gajin Lee, *10 Highlights I KIAF Highlights 10 Artists Interview #7 Kyoungjae Cho*
https://www.marieclairekorea.com/special/2026/09/10-highlights-chokyoungjae/
10 Septembre 2026

CULTURE > ART

10 HIGHLIGHTS | 키아프 하이라이트 작가 10인 인터뷰 #7 조경재

editor 이 가진(프리랜서) | 2026년 09월 10일

작품성은 물론 확고한 정체성, 동시대성과 미술사적 의의까지.
올해 키아프 서울의 하이라이트 섹션이 주목하는 작가 10인의 면면.



조경재 CHO KYOUNG JAE

GALLERY PALZO

조경재(1979, 한국)는 상명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마이스터슐러 과정을 수료했다. 독일과 한국에서 사진을 중심으로 설치, 퍼포먼스, 공간 연출 등 다양한 매체적 실험을 통해 사물의 본질과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사진과 설치를 잇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두 매체를 통합하고 있나?

내게 사진과 설치는 다른 매체나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다. 사진은 바라보는 범위에서 시작된다. 하나의 사물과 공간을 오래 관찰하면서 형태와 질감, 빛의 변화를 읽는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은 짧지만 관찰은 매우 길다. 사진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반면, 설치는 몸으로 사고하는 과정이다. 재료를 옮기고, 구부리고, 쌓고, 무너뜨리면서 손과 몸의 힘이 그대로 공간에 기록된다. 머리로 계획한 결과보다 몸이 반응하며 만들어내는 우연과 저항이 더 중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사진과 설치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설치는 실제 공간 안에서 무게와 크기, 긴장감을 경험하게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존재한다. 반대로 사진은 그 복잡한 공간을 하나의 평면으로 압축하면서 시선을 선택하게 만든다. 설치는 공간 속에서 생각하는 방식이고, 사진은 그 생각을 응축해 바라보게 만드는 방식인거다. 나는 이 둘을 억지로 통합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둘 사이에 끝내 메워지지 않는 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작업할 수 있다. 그 틈에서 몸과 공간, 빛과 시간이 서로를 드러내며, 바로 그사이에서 내가 찾고 싶은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목재와 철재 등 재료를 수집해서 쓰다가 직접 제작하는 쪽으로 한 차례 변화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재료를 발견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재료를 만드는 사람에 가까워졌다. 초기 사진 작업은 우연히 발견한 사물에서 시작됐다. 길에서 주운 나무토막, 버려진 철, 공사장에서나온 폐자재처럼 시간을 품고있는 오브제들을 수집하고 조합했다. 의자나 벽돌, 철재가 형태와 색, 질감만 남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수집만으로는 내가 경험한 감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2024년부터 필요한 오브제를 직접 제작했다. 작업의 중심이 사물에서 몸으로 이동한 것이다. 최근에는 동굴의 구조, 강물의 흐름, 나무 표면의 질감처럼 자연에서 받은 감각을 몸으로 다시 해석한다. 중요한 건 완성된 형태보다 형태 안에 기록된 힘이다. 철은 휘면서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녔고, 나무는 압력에 의해 갈라지고 부서지면서 예상치 못한 결을 드러낸다. 이런 재료의 물성을 억지로 통제하기보다, 몸과 재료가 서로 반응하며 만드는 현상을 중시한다. 수집에서 제작으로의 변화는 사물을 바라보던 작업에서 몸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키아프에서 선보일 작품을 소개한다면?

사진, 설치, 영상을 함께 선보인다. 모두 사진을 기반으로 공간과 몸, 재료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 결과물이다. 그 중 '철003'은 기존의 종이 잉크젯 프린트 방식에서 벗어나 철판 위에 이미지를 프린트한 사진 작품이다. 철이라는 재료의 질감과 사진 속 이미지가 함께 존재 하며 사진의 평면성과 물질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또한 철판 위에 기본적인 채색 과정이 더해지며 사진의 복제성보다는 작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발생한다. 설치 작품은 사진에서 다뤘던 구조와 형태를 실제 공간으로 확장한 작업이다. 길게 늘어진 철 구조물은 철의 무게와 휜 형태, 그 안에 남아 있는 힘의 흔적으로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또 다른 감각을 만들어낸다. 영상 작품에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공연과 퍼포먼스의 흐름을 담았다. 사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공간과 오브제, 구부리고, 쌓고, 무너뜨리면서 손과 몸의 힘이 그대로 공간에 기록된다. 머리로 계획한 결과보다 몸이 반응하며 만들어내는 우연과 저항이 더 중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사진과 설치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것이다. 설치는 실제 공간 안에서 무게와 크기, 긴장감을 경험하게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존재한다. 반대로 사진은 그 복잡한 공간을 하나의 평면으로 압축하면서 시선을 선택하게 만든다. 설치는 공간 속에서 생각하는 방식이고, 사진은 그 생각을 응축해 바라보게 만드는 방식인거다. 나는 이 둘을 억지로 통합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둘 사이에 끝내 메워지지 않는 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작업할 수 있다. 그 틈에서 몸과 공간, 빛과 시간이 서로를 드러내며, 바로 그사이에서 내가 찾고 싶은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목재와 철재 등 재료를 수집해서 쓰다가 직접 제작하는 쪽으로 한 차례 변화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재료를 발견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재료를 만드는 사람에 가까워졌다. 초기 사진 작업은 우연히 발견한 사물에서 시작됐다. 길에서 주운 나무토막, 버려진 철, 공사장에서나온 폐자재처럼 시간을 품고있는 오브제들을 수집하고 조합했다. 의자나 벽돌, 철재가 형태와 색, 질감만 남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수집만으로는 내가 경험한 감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2024년부터 필요한 오브제를 직접 제작했다. 작업의 중심이 사물에서 몸으로 이동한 것이다. 최근에는 동굴의 구조, 강물의 흐름, 나무 표면의 질감처럼 자연에서 받은 감각을 몸으로 다시 해석한다. 중요한 건 완성된 형태보다 형태 안에 기록된 힘이다. 철은 휘면서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녔고, 나무는 압력에 의해 갈라지고 부서지면서 예상치 못한 결을 드러낸다. 이런 재료의 물성을 억지로 통제하기보다, 몸과 재료가 서로 반응하며 만드는 현상을 중시한다. 수집에서 제작으로의 변화는 사물을 바라보던 작업에서 몸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키아프에서 선보일 작품을 소개한다면?

사진, 설치, 영상을 함께 선보인다. 모두 사진을 기반으로 공간과 몸, 재료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 결과물이다. 그 중 '철003'은 기존의 종이 잉크젯 프린트 방식에서 벗어나 철판 위에 이미지를 프린트한 사진 작품이다. 철이라는 재료의 질감과 사진 속 이미지가 함께 존재 하며 사진의 평면성과 물질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또한 철판 위에 기본적인 채색 과정이 더해지며 사진의 복제성보다는 작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발생한다. 설치 작품은 사진에서 다뤘던 구조와 형태를 실제 공간으로 확장한 작업이다. 길게 늘어진 철 구조물은 철의 무게와 휜 형태, 그 안에 남아 있는 힘의 흔적으로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또 다른 감각을 만들어낸다. 영상 작품에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공연과 퍼포먼스의 흐름을 담았다. 사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공간과 오브제, 몸의 관계를 움직임과 시간의 방식으로 확장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 공연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Yeonjeong Lee, *L'occasion de montrer la délicate interaction entre l'objet et l'espace temps*
Maeil Shinum
04 Septembre 2026

每日新聞 2026-09-04 (금) 004면

2026 키아프 '하이라이츠' 10人 선정된 조경재 작가

"사물·시공간의 미묘한 상호작용 보여줄 기회"

"올해 '키아프 하이라이츠'의 10인에 선정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국내외 미술 관계자들에게 제 작업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2일 키아프 서울 전시장의 갤러리 팔조 부스에서 만난 조경재 작가는 수많은 미술 전문가들과 관람객 앞에서 담담하면서도 차분하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올해 키아프가 주목한 '하이라이츠' 세미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작가 중 한 명이다.

올해 '키아프 하이라이츠'는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하며 10년 이상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작가들에 주목했다. 작품성과 독창성, 동시대성, 확고한 정체성, 국제적 맥락에서의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키아프 참가 갤러리가 추천한 작가 중 10명을 선정했다.

조경재 작가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한국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독일 뮌스터 미술대학에서 마이스터슐러 과정을 수료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경기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전시했으며 KT&G SKOPF, SeMA 신진작가 선정, 송은미술대상 본선에 진출한 바 있다.



조경재 작가.

올 초 대구 갤러리 팔조서 개인전
얽히고설킨 오브제 사진으로 담아

그는 올해 초 대구 갤러리 팔조에서 한 달간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보이지 않는 배우들'을 타이틀로 ▷공간과 사물 ▷빛 ▷시간에 대한 섬세한 탐구를 담은 사진을 전시했다.

갤러리 부스 내 별도의 공간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진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설치, 영상으로 꺼내보였다. 얽히고설킨 대형 오브제들을 마치 추상회화처럼 사진으로 담아내는 그의 작업 과정이 궁금했던 이들이라면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볼 만하다.

작가는 "오브제를 공간에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형상, 빛과 페인팅이 더해지며 나타나는 관계 등을 설치 작품을 통해 얘기하고자 했다"며 "사물과 공간, 시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키아프 서울은 현장 심사를 거쳐 3일 고사리(갤러리신라), 임노식(아라리오갤러리)을 하이라이츠 최종 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각 1천만원의 작가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연정 기자

Soojeong Song, (*Une photo), l'abstrait pour la photographie*
The Joongang Sunday
27 Juin 2025

정치의 영역, 인문학의 영역

선데이 칼럼





"일자리 고민했던 사람 그 반짝이가 사라졌다… 삶에서 가능했던 사람/ 죽어서 살면 먹으려고 보리밭에 묻였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리고 장신 두 짝 놓아-주었다…"

한번 읽고 난 후 온전히 나를 장악했던 시. 이태원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다. 공감력이. 시인은 그를 보기함에 묻었던 시. 그 시절의 가난까지 끌어올리면 뜻만 전달력. 혹 그는 보다들의 힘, 법의 힘으로 명목을 빌려 그 시절의 가난까지 그리워한 것은 아닐까.

나는 또 궁금해다. 왜 요즘 가난한 그런 감이 혹은 낭만이 없는 지. 예다가 없고, 산이 없고, 가족이 참이 없고, 바닷 아래 함께 놀 수 없는 한국가 있을 때 가난은 먹고 사는 일의 손고생을 말해주는 스산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인력업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학력 같은 것 그래 없을 먹는 일은 대지의 숨결을 느끼는 일이다. 무공과 바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겠다, 밥이 하늘이라고.

현대 사회서 스케 발전하는 AI AI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쉽게 삶은 누구에게나 어긋 같은 것 자기 방식으로 세 길 찾아가야

그것이 지금인 도 사의 세상은 깊에, 대통급 심위, 교육비, 식비, 핸드폰비, 병원비, 등등이 도 오두가 문에 가득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회에서 가난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다. 그것은 종종 무능과 실패 혹은 벌로의 낙인이 따라다니는 쓴존의 문제다고, 공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다. 아동화의 인주권이 의 아이은 해외클래스는 입력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는 이런 연설을 했다. "우리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난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확실이 해외클래스는 정확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사회에 프르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지만 끊임없이 질문하는 아이들은 문명인 그는 분명히 이해네 지점 인주권이를 이은 주체적인지만 도전주변화에 이해 두 번이나 주변을 달랜다니 누구보다도 인심의 힘을 알기 알았음력.

윤 윈도 같이 있을 할 것 같은 이대론 정부가 들어섰다. 이제론 대통령도 막아나라은 해시클래스의 설력을 살았다. 그런 그당계 그가 계일 먼저 찾은 산업체는 AI 데이터 센터였다. 엔지사이에서는 AI의 곤생력을 무시한 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는 없겠다. 시대의 변화을 읽을 줄도 알고, 이기도 있고, 윈도 있으니 알고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은 곧 강이 상당조차 할 수 없었던 초기속 시대를 견뎌내게 될 것 같다.

그런 시대에 도대체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미국 대학을 보낸 한 친구가 미국 대학의 분위기를 전해 에너게 이런 에기를 한다. "인문학의 위기에, 법학 '엘고'가 리포트도, 논문도… 같도 다 써주는 세상이라는 거네. 주제 만 넣으면 자료정리를 다 해주니…"

그것이 간단 인문학의 위기일 수 있다면 인문학이 위기인한 학이 있을까. 기술관련 학이 없는데, 인문학은 자료 정리를 잘 해서 좋은 경기를 분석 하는 도구가 아니고, 넓 넌 면에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에서 번복적으로 나라 감의상의 상적을 보여준 명제를 기억할 지 모르겠다. "나는 아름답고 중요없는 것들을 좋아해요." 인문학이 좋은 사람들은 중요에 끌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리는 것과 놀 줄 아는 사람들이다.

분명 챗GPT의 시대가 열렸다. 학보증 인간, 자연종 인간을 존 경대한 교수는 "자신보다 기능적으로 뛰어난 로봇과 살지 못할 까닭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특히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 물어야 한다며 여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인문학적인 능력은 양 말하기도 한다. 구비하다. 그런 생각에 사상집사면 좋을 내 안에서 끌어오는 질문들을 경험한다. 묻고 싶은 것을 묻지 못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묻고 싶은 것을 묻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거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진정한 질문은 답이 없다는 것을. 단지 질문을 묻고, 묻고, 질문의 수업 속에서 하루하루가 생보게 되는 것이 삶이 진실이라는 것을.

윤 은 그것을 개성의 과정이라고 했다. 그 개성을 과정을 정말 독특하게 거쳤던 철학자가 나왔다. 그 나에가 세상을 향해, 자신을 향해 던진 물음은 이것이었다. 어제하여 나는 하나의 문명인가, 그 나에를 사람한 나으스 커런하기스는 키르케고의 자서전에서 나에 인생을 이렇게 해석했다. "나를 감동시킨 것은, 오 위대한 손교자여, 그처럼 거목 이고 바지까진 싫어했다. 질병은 그처의 위대한 재이며 또한 가장 위대한 친구이고, 죽을 때까지 그것에게 변함없이 존경했던 무엇이었다. 그것은 정녕로 그대가 아름을 놓게나. 제작자에 대답에 내에게 무지 같았다나-> 그것는 불꽃이 아서 불을 타오르다 '생다이면 남기게 된다다."

실은 누구에게나 비공이다. 그럼 그 답게 만든 미공에 대한 쓰기심이 아는 것은 그에 대한 쓰기심자의기심이 그것이 나가를 자기이어 이공을 빠져나갈 아라이스네이 같이 내 안에 있음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가난해지니 부자하니, 말이 빼빼해지니 아니게니, 병들었지니 건강하지니, 문이 좁지니 불문이지니, 심적이 좁지니 넓니하니, 제대다 자기 이공을 살고, 거기서 자기 방식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다. 비공 같은 인생이 당신에게 안겨해 내준 물음은 무엇인가.

사진 한 장

사진을 위한 추상



A, 사진, 2024, 신조경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추상미술가 유행한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비로 서에서 모든 이념과 논쟁을 벗어난 채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위해 어떤 상황 있다니 형태도, 재구한 색 오로지 점, 선, 면만으로 캔버스를 구성한다. 이렇게 클면성을 강조함으로써 문학보다는 시각상의 약하고 조각성하는 입체성의 약한 피해면의 사방등을 보였다. 여기 조경작의 작품이 있다. 얼핏 낙엽 추상화해요 하려으로보는 기하학적 형태의 구조를 중시한 20세기 초 러시아 구축주의의 분위기도 풍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진이다. 그렇다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사물의 표면을 촬영했다거나, 아무렇게 초작해고 했정하는 디지털 조정 또한 거의 없었다. 대신 그가 직접 물리적 세계를 구축한 뒤 촬영한다.

조경작는 주변에서 흔히게 구할 수 있는 사물이나 재료를 일거나 구부리고 조합해 추상적 공간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사물의 본래 의미는 사라진다. 대신 형태와 구조, 사물 표면의 색만 남는다. 일관적으로 따라의 클면성이 물감으로 캔버스를 채우는 과정처럼면 사진의 평면성은 시각 세계를 프레임에 맞춰 생략하고 요약하는 과정에 가깝다. 입체적 대상을 촬영하는 한, 추상화되기 부정하려면 재현의 속성을 사진은 버리기가 어렵다. 조경작는 입체적 대상의 일부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고유의 언어으로 질서를 공간 자체를 추상적으로 구축해 버렸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의 구축물은 실제하지만, 할 땐 주체는 사라지는 입시하지고 입시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때로 촬영 후 사진을 입체물을 구축하는 이 과정 자체가 목적이 작품 제인 퍼포먼스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곧, 입체를 기록한 사진적 촬영이 아니라 촬영을 위한 입체의 탄생 과정이다. 송수홍 서강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신경진의 인강(人講) 중국어

홍삼대



모는 9월 7일 세이의 한인문 앞에서 열렸시 (복조)은 부국 6만 9천.

원일인은 슈이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당신 앞본사은 2015년 전국 70주년에 열렸다. 도 보 장이 공중무대 손이로 열렸이 끝나고 30대 자랑과 10만 군중이 자주이다 행무대에서 등은했다.

당시 부 생하이 "이 경제도시를 하룻 하룻"였다. 존경을 표시하는 대중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 기여한 원로이자 자손인 동이하로그런 시무개 이유에 있다. 다자 선전의 시진을 들고 있었다.

중국 입장문은 이제의 전국 유권자를 주기적으로 기념한다. 1990년에는 당 중앙이 고민을 가지는 세부구성을 만들었다. 무이하로 남다 나이였고, 넷은 은은도와 전국 후 처남에 따라 출을 세웠다. 기념이 아닌 생일을 기념한다.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주다 등 지도자들은 한번 이런은 100,200번째 생일에 인장을 했다. 인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년 주기로 기념하는 것이다. 당년 양력에서 모시는 존원은 10년마다 기념하지만 1번, 이래 등급 원로는 100주년 기념하당한다.

지난 1일 전원의 100주년 기념하당하기 열렸다. 전원은 80년대 중반고위원을 주임으로 당 홍서기·국가주석을 역임했다. 이날 행당하다 기념하 당시 부주석을 역임했다. 이날 행당하다 기념하 당시 부주석을 역임했다. 이날 행당하다 기념하 당시 부주석을 역임했다.

이어 부원장 시쩌린이 인장하는 연사 후 삼성하이 부장을 역임한 보시성이 부주석(총리)을 역임한 보이보 전 선이이 등장했다. 원장고문위 부주임을 역임한 보이보 전 선이이 등장했다. 원장고문위 부주임을 역임한 보이보 전 선이이 등장했다.

보고르는 당대에서 아버지의 '배경 이해'를 말했다. 한국 국이교과서에도 실렸던 중국의 문인 주즈칭(朱自淸)의 수필 '아버지의 뒷모습'의 배경 이야기. 기억하게 해줄 나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아렸다는 글이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점에 중국 최고지도 자가 가족들과 함께 캠퍼스 내 동원을 관람하며 안나 시사했다. 이 자리에 양회성 부기 참석했다고 별 라우스 에게가 인했다. 관계 없는 동공의 중국공론가 많이 됐은 "중국 정치에서 자녀의 함께 대응 입에 나타나는 것은 부분 은체를 준비한다는 신호"라고 분했다. 세계교에의 참주가 갖은 요 관이다.

Yeonha Choi, *La photographie arrive - Le monde « photographique » de Kyoungjae Cho*
PhotoArt n° 419
Edition Sajinyesul, ISSN 1739 - 5844
Mars 2024





사진이 온다 –
조경재의 '사진적'인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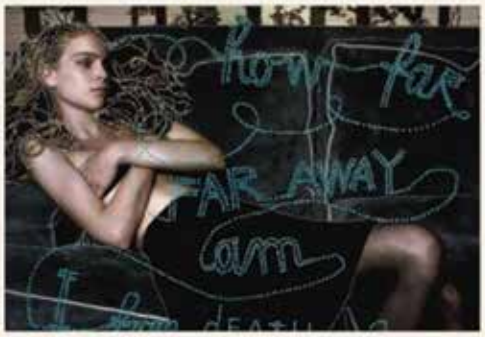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Leonard Cohen

"모든 것에는 깨진 틈이 있다.
빛은 바로 거기로 들어오지.

Hyegyeong Choi, *Absolute Reconstruction*
Design House, p. 190 - 191,
ISSN 12271152
Juillet 2023





조경재 개인전

<절대적 재구축(Absolute Reconstruction)>

Exposition personnelle de Kyoungjae Cho « Absolute reconstruction
Design Project
2023



조경재 개인전 〈절대적 재구축〉전

피사체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진가, 조경재의 개인전이 갤러리 지우헌에서 열린다.
그간 독일과 한국에서 작업해온 작가의 변모기를 점검해보는 자리다.